

[북 스]

어린이 책꽂이

▲인권그림책-나는 소중한(제1권)=어린이들의 인권을 명쾌하게 풀어나간 새로운 개념의 인권 교육시리즈.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 상대방도 소중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소중한다는 진리를 아름다운 그림을 곁들여 일깨운다. <미래 M&B·1만원>

▲박지원이 들려주는 열하일기=조선시대의 대문장가이며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소설 '열하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풀어냈다. 청나라를 여행하게 돼 뽕뜰 모습, 술과 농담을 즐긴 박지원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세상모든책·9천원>

▲너도 보이니?(제3권)=독특한 사진작업으로 새로운 그림책 장르를 개척한 윌터 워크의 그림책 찾기가 '너도 보이니?' 시리즈. 땀방이 단추들, 으스스한 공룡나라, 해변의 친구들, 구슬 잡동사니, 반듯한 나무부록 등 12개의 숨은 그림 찾기가 실려 있다. <달리·9천500원>

▲만화로 보는 로마 이야기=천년제국의 신화 로마의 역사 이야기를 미래 SF소설의 요소를 가미해 재미있게 엮은 만화책. 주인공인 가람은 닥터 제로, 카마와 함께 로마시대를 여행하면서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만나고 여러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가나출판사·9천500원>

▲바리공주=시인이며 소설가인 김승희씨가 어린이들을 위해 처음으로 쓴 그림책이다. 바리공주가 여자로서 겪은 고단한 삶과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펼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바리공주의 슬픔, 기쁨, 분노, 희망, 사랑 등의 감정변화가 원색의 그림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비룡소·9천500원>

불꽃같이 살다간 49인의 마지막 한마디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원재훈 지음

생의 끝자락에 놓인 사람들이 남긴 말 한마디는 산자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잊혀질 정도로 강렬한 울림으로 남는다. 죽음이란 '절대진실' 앞에 경건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기에 위인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지상에 남긴 말은 산 사람들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절절한 가르침이 되기도 한다. 소설가 원재훈씨가 쓴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는 위인은 물론 범부까지 자신의 삶을 철저히 불사른 49명이 죽음을 맞이한 순간의 마지막 한마디를 모은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그 자체로 명저를 누르는 '통증'으로 다가온다.

대구지하철 사고의 한 희생자는 팔에게 "운동 넘쳐 뭉쳐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라는 말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남겼다. 탄광 사고로 숨진 미국의 광부 마틴 톨러 주니어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겠다. 그냥 천천히 잠드는 것 같아. 사랑한다. 모두에게 다음 세상에서 만나"고 말했다.

코베인·체 게바라·대구 지하철 희생자 등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지상에 남긴 말



<체 게바라> <커트 코베인> <코코 샤넬>

자고 전해주렴"이라는 마지막 말을 가족에게 전했다.

패션의 혁명을 이끌었던 코코 샤넬은 '나에겐 일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나는 일요일이 가장 싫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일중독자였다. 그런 그녀는 유언에도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정을 담았다. "나는 그리 아름답지 않은 해골을 남길 것 같아요. 땅속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빨리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를 꿈꿔요. 테니카요." 록그룹 너바나(Nirvana)를 이끌었던 커트 코베인은 인기 최정점에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서서히 소멸하는 것보다 한 번에 불타버리는 것이 낫다"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턱에 방아쇠를 당겼다.

사상가와 정치가들은 좀 더 무게감 있는 말을 남겼다. 사르트르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일컬었던 체 게바라는 "나는 지금 혁명의 불멸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마지막을 대신했다. 영국의 영웅 벨스 제독은 "신이여, 고맙습니다. 저는 소명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았다.

"천하의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삶을 후회한 황진이는 "만일 제가 죽거든 금수도 관도 쓰지 마세요. 옛 동문 밖 불가 모래밭에 개미와 땅강아지, 여우와 살팽이에게 뜯어먹혀, 세상 여자들로 하여금 저를 경계 삼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말로 생을 접었다.

예술가들은 유언에서조차 예술의 향취를 남겼다. 작가 로맹 가리는 "마침내 완전히 나를 표현했다"고 유언했으며,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내 장례식 때는 꼬마 친구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그러나 장송곡을 내 친구들의 걸음걸이에 맞춰주게"라는 말을 남겼다. <문학동네·9천5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아키 유키오의 '우리 모두를 위한...'

피서(避暑)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 피서는 더위를 피하려 갔다가 더위를 찾아 나선 꼴이 되기 십상이다.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의 저자 신영복 선생은 피서(避暑)라 하여 여름을 책을 읽기 힘든 계절이라 했다. 하지만 천개구리 식으로 사는 것도 또 다른 삶의 지혜다. 8월 초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월적을 낚은 책이 바로 아키 유키오의 '우리 모두를 위한 비폭력 교과서'이다.

저자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파괴와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풀어나가는 비폭력 행동을 지금 당장 실천하고 촉구한다.

우리나라 환경운동·비폭력평화운동의 원로인 김원식 선생이 번역한 이 책은 폭력과 비폭력의 정의부터 시도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에서부터 비폭력인지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폭력은 육체, 정신, 물질에 대한 강제력이나 침해에 말하는 '직접적 폭력'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구조적 폭력'이 있다. 이것은 사회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강제력이나 침해를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테러리즘, 핵, 미디어, 경제 개발을 뜻하는 '팩스 이코노미카' 등도 모두 폭력이다.

핵·미디어·경제개발도 폭력이다

그 중 가장 커다란 폭력은 권력에 의한 폭력이며, 남녀 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남성의 지배가 통하는 체제 즉, 폭력적인 남성우위 사회 역시 폭력이다. 직접적인 폭력 혹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전쟁 등의 거대한 폭력에는 민감하면서도 흔히 일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성차별, 장애차별 등에는 둔감하기 쉬운 보통사람들에게 따듯한 일침이 될 만하다.

그러면 비폭력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단순 소박한 삶, 평화적인 수단과 진실한 동포의식, 비폭력적 적정 기술, 커뮤니티의 건설 등을 제시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 개발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국민을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물욕을 억제하고, 가난한 나라나 사람들로 부터 자원을 수탈하는 것을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은 평화와 정의에 공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116쪽)."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는 '비폭력 실천 방법 안내'도 꽤 실용적이다. 전단을 배포하는 데 경찰관이 와서 제지하면, 미리 경찰관에 대응할 담당자를 정해놓고, 경찰관과 토론하는 틈새를 타서 신속하게 배포하라는 식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폭력 트레이닝 방법을 다룬 '비폭력 수업에, 이렇게 하자'도 독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각각의 방법들이 250여 컷에 달하는 삽화로 표현되어 있어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다.

인간을 차별하는 구조적 폭력에 지금 당장 대응하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용목 목사 (사)실로암시립회 회장>



다윈의 '종의 기원' 만화로 만나다

비글호에서 탄생한... 기획집단 모임

다윈의 '종의 기원'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등 고전을 만화로 만나 보는 건 어떨까. 역사와 고전의 현대화·대중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서해문집이 인문만화 시리즈 '카툰 클래식'을 시작한다. '카툰 클래식'은 인문·역사·예술·고전 분야의 명저를 접근하기 쉬운 '만화'라는 틀을 빌려 조명한 시리즈로 사진과 그림자료, 해설 등까지 함께 실어 충실하게 제작했다. 첫권으로 나온 '비글호에서 탄생한 종의 기원'(구성 기획집단 모임, 그림 신용)은 다윈의 생애와 그가 비글호를 타고 떠난 항해 과정에서 찾아낸 과학적 지식, 세계를 흔든 명저로 꼽히는 '종의 기원'을 비롯한 진화론과 관련된 과학적 성과가 담겨 있다.

앞으로 '만화로 보는 철학사'(리처드 오스본), '갈리아 전기'(율리우스 카이사르), '사기 열전'(사마천), '두 도시 이야기'(찰스 디킨스), '서푼짜리 오페라'(베르톨트 브레히트) 등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서해문집·1만1천9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의 삶과 문화를 바꾼 불펜·화약...

세상을 바꾼 최초들 제르마 지음

'최초'라는 것에는 커다란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최초'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기원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프랑스 출판사 편집장 출신의 피에르 제르마가 쓴 '세상을 바꾼 최초들'은 제목에 성실한 책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40여 가지 항목의 기원과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불, 양초, 거울, 바늘, 패션 마네킹 등을 거쳐 바퀴, 화약 등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발명품까지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물건을 다룬다.

이 밖에 엘리베이터가 처음 사용된 곳, 인쇄물의 최초 오자, 택시의 어원 등 다소 시시콜콜해 보이는 질문에서부터 역사상 최초의 평가절하, 프랑스 대혁명에 가장 먼저 대두된 곳, 바칼로레아의 역사 등 한 시대의 생활 및 문화사를 엿볼 수 있는 질문들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가득 차 있다. <하늘연못·1만7천원> /곽성기기자 ks@kwangju.co.kr

정우부동산랜드
남구 신성동 G/B 빌800평
니주 온곡농공단지 1030평
장흥 유치 대전(전·담)임야
전월동APT 입주상가 380평
광주대입 입주상가 233평 대도
니주 남평 사산(드림강원원지)
니주공단 금곡 생석지 458평
니주 온곡동 자연치유 임야 3840평
니주 평산리 배밭 1850평
가든 및 전원주택부지 1200평
양파동 G/B 597평 대도

한국공인중개사
장성지역
공정부지, 불류참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한 지면관계상 물건 올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점
대지 약 3000평
건물 1-철골조 2층 437평
건물 2-철골조 2층 248평
매매가 12억(절충가능)
장성군 향릉,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동림2지구 대입
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이름다운부동산
상가건물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투자의 최적기입니다.
남구 이장동 임야 2800평 금매매
남구 양파동 전 400평 금매매
남구 화정동 1층 주거지역 매매
남구 이장동 주택 금매매
남구 양파동 대지 금매매
남구 양파동 주택 및 상가매매
이장동 주택 1동 금매매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부동산 전문중개
병원부지
모텔매매
전원주택용지
도지
신축건물 임대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부동산 전문중개
병원부지 전문중개

국민지도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5천분의 1 150,000원 판매중
100,000원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국민지리정보(주)대리점 모집 (광주지역 2곳)
현재 시판중인 지번도책 목록
광주광역시, 나주시,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함평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광주지사 위치: 쌍촌동 무진로 버들마을앞
광주지사 : 062-385-0114
목포지사 : 061-284-7833
순천시 : 061-744-0973